

BRAD REPORT

NO.24

202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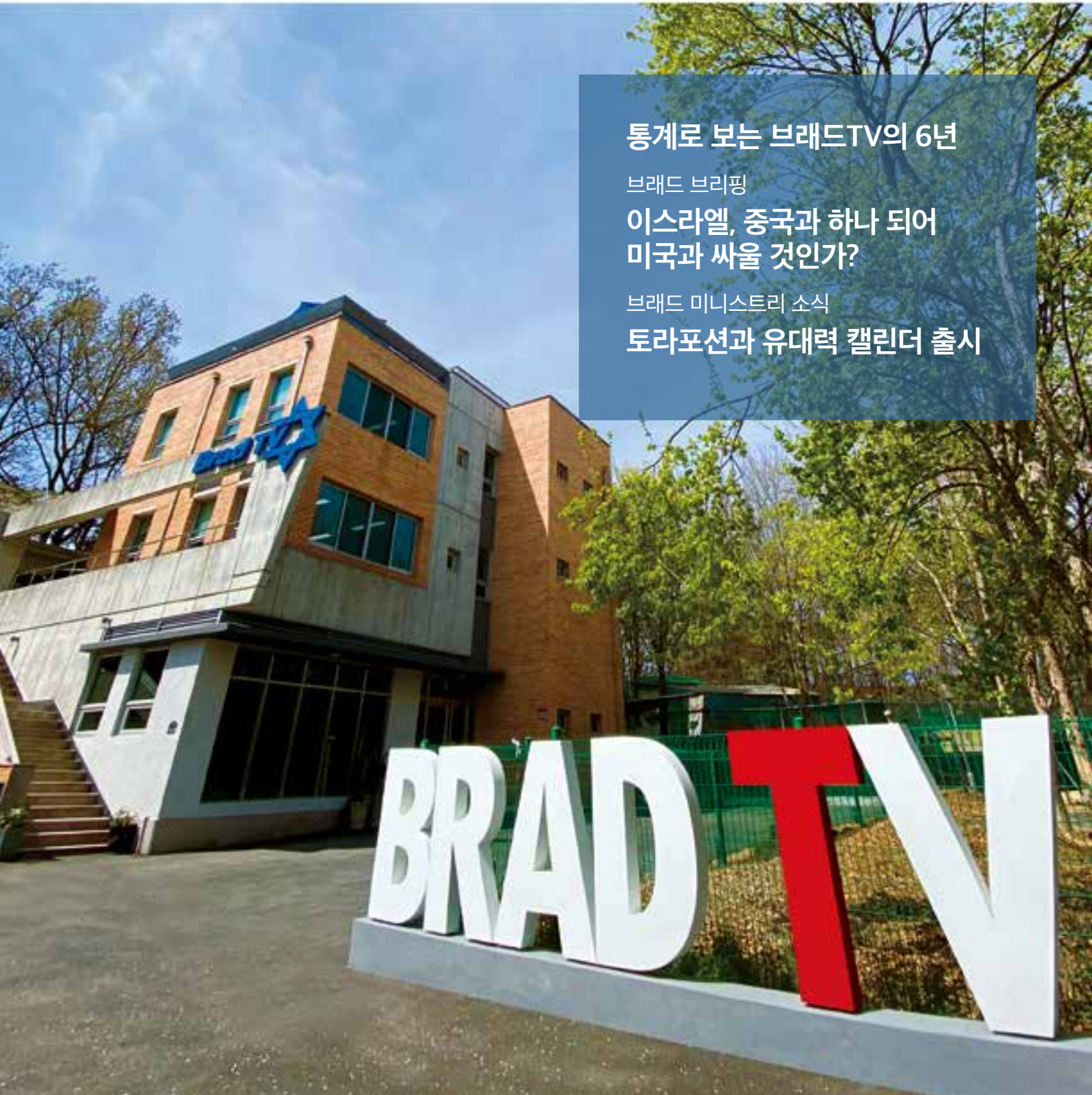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브래드TV의 6년

브래드 브리핑

이스라엘, 중국과 하나 되어
미국과 싸울 것인가?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토라포션과 유대력 캘린더 출시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몹시 급한가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목요일에 브래드쇼와 브래드 브리핑을 촬영하고 금요일은 사뵈 예배를 드리고 월, 화 이틀 동안 그야말로 정신없이 편집하고 수요일에 업로드를 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그리고 일 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브래드TV가 시작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뭐라고요? 이제 6년밖에 안 되었다고요?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로 제가 SBS를 그만둔 지 11년, ‘회복’ 영화를 만들어 극장에 개봉한 지 10년, 브래드TV는 시작한 지가 꼭 6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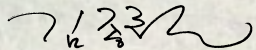
6년 전에 브래드TV가 시작할 때만 해도 유튜브 방송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미디어의 중심이 공중파나 케이블이 아닌 유튜브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소재로 방송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스라엘과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모두 40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제작했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기적이다’라고 예단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죠. 그러나 저희는 지난 6년 동안 단 한 주도 이스라엘 소식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로 7월 27일자로 모두 2,128개의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고 전체 조회수는 25,120,617회, 정기구독자는 95,487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마도 이번 브래드 리포트의 8월호가 인쇄되어 여러분이 받아보실 때에는 정기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가리켜서 아프리카의 세레게티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루에도 수백 개의 채널이 생겼다가 관심을 받지 못하면 사라지고 온갖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야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치열한 경쟁만이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얘기죠. 이런 세계 속에서 기독교 채널이, 그것도 이스라엘 소식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을 6년 동안 지속하며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본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기적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도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몹시 마음이 급하신가 봅니다. 보잘것없이 시작된 브래드TV를 하나님은 더욱 튼튼하게 몸집과 맺집을 키우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놀라운 계획들을 알리고 싶어 하시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급하셔서 자꾸만 듣고 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저는 브래드TV를 하면서 매번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무척 마음이 급하시구나’ 알만한 분들은 무슨 애긴지 잘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브래드TV와 제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 
- 6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이스라엘, 중국과 하나 되어 미국과 싸울 것인가?
 - 10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12 통계로 보는 브래드TV의 6년
 - 14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 16 토라포션이 뭔가요?
 - 18 이스라엘에서 온 뉴스
 - 20 하나님 말씀의 능력 2부
하나님 말씀의 성쇠 -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 24 이스라엘&중동 리포트
 - 28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 30 브래드TV 7월 프로그램 리스트

LIVE 금요 사밧 예배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시다!**

시청 방법

유튜브 채널 'Brad TV'의 홈 화면 오른쪽에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한국시각으로 금요일 오후 4시, 사밧 예배가 시작되면 방송 알림이 옵니다

*또는 시간에 맞춰 유튜브 채널 'Brad TV'에 접속하여 상단에 올라온 생중계 영상을 눌러주세요

브래드 리포트는 매달 2~3째 주에 배송되고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시면 반드시 연락주세요.

토라포선 5780 2020

율법은 기록하고
계명도 기록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롬 7:12

유대식으로
매주 읽는 말씀의 분량,
토라포선

아브월

아브월은 유대력의 열한째 달(닛산월로부터 다섯째 달)이다. '아브'는 아버지라는 의미이다. 보통은 '아브'에 '위로자'라는 의미의 'Menachem(므나헨)'을 덧붙여 '므나헨 아브'라고 부른다. 이달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비극이 일어났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인들을 위로하신다. 아브월 9일에는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 파괴된 제 1, 2성전을 기념한다.

8월 아브 & 엘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아브 11

바에트하난 (그리고 내가 간구하기를) 신 3:23~7:11 / 사 40:1~26 / 마 23:31~39 막 12:28~34

2 아브 12 3 아브 13 4 아브 14 5 아브 15 6 아브 16 7 아브 17 8 아브 18

에케브 (그 결과로) 신 7:12~11:25 / 사 49:14~51:3 / 히 11:8~13 롬 8:31~39

9 아브 19 10 아브 20 11 아브 21 12 아브 22 13 아브 23 14 아브 24 15 아브 25
공복절

르에 (보라) 신 11:26~16:17 / 사 54:11~55:5 / 요 7:37~52 요일 4:1~6

16 아브 26 17 아브 27 18 아브 28 19 아브 29 20 아브 30 ¹ ²
태슈바 1 태슈바 2 22 엘룰 2
태슈바 3

쇼프팀 (재판) 신 16:18~21:9 / 사 51:12~52:12 / 요 1:19~27 행 3:22~23

23 엘룰 3 24 엘룰 4 25 엘룰 5 26 엘룰 6 27 엘룰 7 28 엘룰 8 29 엘룰 9
태슈바 4 태슈바 5 태슈바 6 태슈바 7 태슈바 8 태슈바 9 태슈바 10

키 테페 (네가 나갈 때에) 신 21:10~25:19 / 사 54:1~10 / 마 5:27~30 고전 5:1~5

30 엘룰 10 31 엘룰 11
태슈바 11 태슈바 12

키 타보 (네가 들어갈 때에) 신 26:1~29:9 / 사 60:1~22 / 엡 1:3~6 계 21:10~27

9월 엘룰 & 티슈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엘룰 12 2 엘룰 13 3 엘룰 14 4 엘룰 15 5 엘룰 16
태슈바 13 태슈바 14 태슈바 15 태슈바 16 태슈바 17

키 타보 (네가 들어갈 때에) 신 26:1~29:9 / 사 60:1~22 / 엡 1:3~6 계 21:10~27

6 엘룰 17 7 엘룰 18 8 엘룰 19 9 엘룰 20 10 엘룰 21 11 엘룰 22 12 엘룰 23
태슈바 18 태슈바 19 태슈바 20 태슈바 21 태슈바 22 태슈바 23 태슈바 24

나짜빔 (서 있는 것은) 신 29:10~30:20 / 사 61:10~63:9 / 롬 10:1~12

바엘레크 (그리고 그가 가서) 신 31:1~30 / 사 55:6~56:8 / 롬 10:14~18

13 엘룰 24 14 엘룰 25 15 엘룰 26 16 엘룰 27 17 엘룰 28 18 엘룰 29 19 티슈리 1
태슈바 25 태슈바 26 태슈바 27 태슈바 28 태슈바 29 태슈바 30 태슈바 31
¹ ²
49일 5781 신년 5781 신년

로쉬 하사나 (나팔절) 창 21:1~34 / 민 29:1~6 / 삼상 1:1~2:10

20 티슈리 2 21 티슈리 3 22 티슈리 4 23 티슈리 5 24 티슈리 6 25 티슈리 7 26 티슈리 8
태슈바 32 태슈바 33 태슈바 34 태슈바 35 태슈바 36 태슈바 37 태슈바 38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신 32:1~52 / 삼하 22:1~51 / 롬 10:14~11:12

27 티슈리 9 28 티슈리 10 29 티슈리 11 30 티슈리 12
태슈바 39 태슈바 40 태슈바 41 태슈바 42
대속죄일 전야 대속죄일 추석 연휴

수코트(초막절) 레 22:26~23:44 / 민 29:12~16 / 속 14:1~21 요 1:10~14 계 7:1~10: 21:1~4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이스라엘, 중국과 하나 되어 미국과 싸울 것인가?

지난 5월 6일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6시간 정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와 베니 간츠를 각각 만나고 떠났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하루에 백 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6시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긴급하게 방문한 이유는 뭘까요? 공식적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서안지구 합병, 코로나 대응에 관한 협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중국이 이스라엘의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나 주요 스타트업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제한하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해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환율, 금융, 석유 등 다방면으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 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 와중에 미국은 이스라엘로 찾아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요구한 것일까요? 중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 폼페이오가 코로나를 뚫고 득달같이 달려간 것일까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 세 나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은 이스라엘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걱정하는 것인지 브래드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글/김종철



방송 바로보기

중국과 이스라엘의 경제적 관계

먼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로 달려가야 할 만큼 중국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경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중국 국유 식품업체인 광명 식품은 이스라엘 유제품업체 트누바의 지배지분을 10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 이상에 사들였습니다. 2015년 홍콩에 본부를 둔 상하이 국제항공그룹은 경쟁 입찰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 하이파 항구와 아쉬돗 항구를 2021년부터 향후 2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신규 부두 관리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철도공정총공사 산하의 자회사와 이스라엘 업체가 설립한 공동경영체가 2015년 5월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경전철 레드 라인 프로젝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6개의 지하역, 10km 이상에 달하는 TBM 터널과 17개의 크로스 통로 등의 공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굴진기는 모두 중국산이고 굴진기의 설치, 성능 시험과 조작 등 전문적인 기술 작업도 모두 중국 측 기술자가 담당하며 지하철 터널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계 세그먼트의 생산도 중국 기술자의 지도하에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총 31억 세켈(약 1조 원) 이상에 달하는 큰 규모입니다.



텔아비브 경전철 레드 라인 키르야트 아리 터널 포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은 IT 등 각종 하이테크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한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이 이

스라엘 벤처 기업을 사는 데 쓴 돈이 165억 달러(약 18조 6천억 원)라고 합니다. 이 액수는 1년 전인 2015년보다 10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중국 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이스라엘 기반의 벤처펀드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2015년 모바일 지불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스라엘의 QR코드 개발 회사 '비주얼리드'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고, 바이두는 이스라엘 R&D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다국적 기업이면서 세계 1위 PC 생산업체인 레노버를 비롯해 많은 중국 회사들이 현재 이스라엘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술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 물량 증가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의 물량도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점인 IT관련 물품 중 반도체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출협회에 따르면 2018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모가 28억 달러(약 3조 1771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 2018년 이스라엘의 반도체 생산 전용 검사 장비 수출도 약 64% 대폭 증가해 4억 5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영국이 큰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영국의 자리에 중국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항공사들은 텔아비브로 가는 직항로를 개설하고 부지런히 중국의 사업가들을 이스라엘로 실어나르고 또 이스라엘 기업가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이스라엘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

왜 이렇게 중국은 이스라엘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스라엘 기업과 교역을 늘려가며 이스라엘의 항만 운영이나 경전철 건설까지 관여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3천 개 이상의 첨단 기술기업이 모여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축소판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도 70여 개가 넘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IT, 의료 바이오, 항공우주, 화학, 다이아몬드, 식품 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활용하는 제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제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이 몹시 탐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은 돈과 광활한 중국의 소비자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과 긴밀하게 무역 교류를 해왔었지만 최근 더욱 심해진 반유대주의, 반 이스라엘 분위기와 함께 이스라엘 제품을 보이콧하는 ‘BDS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적잖은 타격을 받고 새로운 활로를 찾는 중이었는데 마침 중국이 다가오니 마다할 리가 없는 겁니다.



BDS(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운동

중국의 대규모 투자 속에 가려진 이면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업과 기업이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도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중국일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중국이 이스라엘과 사업을 하려는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들뿐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고, 그걸 미국은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싶어합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술입니다.**

중국 기업의 기술 빼돌리기는 이미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경험을 했고 또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선 돈을 투자하고 기술 협력을 하자고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긴밀하게 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IT, 의료 바이오, 화학, 다이아몬드, 식품

산업 등에 기술협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의 항공 시스템과, 레이더 및 관련 전자 시스템, 무인비행기 등 방산 기술까지 탐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에는 민간 기업이 없다

중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은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쩌면 중국 기업이 이스라엘과 협력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빼내 갈 것이고, 그 기술을 군사기술로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내 정보국 신베트의 나다브 아르가만 국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투자에 숨은 또 다른 이유

중국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투자를 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견고한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는 겁니다.

지난 2017년 3월 20일 중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베냐민 테나냐후 총리를 만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악수를 하며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향한 포즈였을까요? 바로 그로부터 2달 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을 향한 일종의 사인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 동맹국이자 형제국가로 안보, 정치, 경제적으로 서로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국이 이스라엘에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떼어내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중국의 리커창 총리

이스라엘에 전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중국이 이스라엘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국방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2019년 1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의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참여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개월에 걸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미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19년 3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아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을 축소하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이번 5월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까지 찾아가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미국-중국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스라엘에게

저는 이스라엘 정부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동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는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국과의 관계는 절대로 같은 가치와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며,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유엔의 결의안들에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고, 워싱턴DC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소의 폐쇄를 명령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이스라엘 관련 특별 고문인 쉬라 에프론이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정부에 남긴 조언을 끝으로 이번 브랜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적 이점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서명하지 마라.
작년 10월 이스라엘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 설립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지가 많은 애매모호한 발표였다.
미국의 압박이 더 커지기 전에
총리가 이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물과 식량, 안보와 같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하며,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지금 이때 이스라엘이 미국에 싸움을 거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 및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운영 위기에 처한 메시아닉 유치원
- 예슈아를 증거하다 직업을 잃게 된 전도자
- 베잇 할렐 공동체, 야드 라킴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



운영 위기에 처한 메시아닉 유치원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메시아닉 유대인이 운영하는 ‘리틀 하츠 유치원’은 아랍계 그리스도인 스태프와 함께 60명 정도 어린이를 돌보며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며 정부는 유치원의 3개월 폐쇄 명령을 내렸다. 현재 모든 교사들은 출근 금지로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서 학생들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건물주가 월세를 낮게 낼 수 있도록 허락했다. 현재 리틀 하츠 유치원은 예루살렘의 높은 월세로 약 7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슈아 안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하나로 연합하여 단체를 운영하는 모습은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도 귀감이 되어왔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아이들도 유대계와 아랍계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교육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곳이다. 리틀 하츠 유치원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 기도 제목

-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종결되어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 리틀 하츠 유치원의 메시아닉 교사들이 인종을 뛰어넘어 연합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슈아를 증거하다 직업을 잃게 된 전도자

이스라엘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직업을 잃게 되었다. 당시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서 버스 기사는 운전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일이 있은 후 6월 7일, Ynet 뉴스 미디어에 의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을 가중화시켰다. 승객에게 예슈아를 전한 무명의 운전기사는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계 그리스도인이다. 버스 회사 ‘카빔’은 해당 기사를 해고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은 ‘이스라엘에는 종교와 발언의 자유가 있다’, ‘전통 유대인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슬로건을 들고 길 한가운데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예슈아를 믿는 자만 핍박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회사는 결국 해당 인물을 해고했다. 심지어 무슬림도 운전기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지체를 이스라엘 땅에서 사도와 같이 사용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무명의 버스 운전기사를 계속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버스 운전기사 신변의 안전이 보호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베잇 할렐 공동체, 야드 라킴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

아쉬돗 지역에서 코로나19 구호 활동, 홀로코스트 생존자 섬김 사역을 포함한 각종 선한 일에 앞장서는 메시아닉 공동체 ‘베잇 할렐’은 무려 2011년부터 극렬 유대인 집단 ‘야드 라킴’에 의해 공격을 받아왔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 처소를 찾아와 대규모 반대 시위를 열고 기물을 파손하며 성도의 얼굴 사진을 찍는 등 무자비한 행위를 이어왔다. 이에 베잇 할렐 공동체는 고가의 CCTV 장비까지 설치하여 누가 공동체에 침입하는지 감시했다고 한다.

야드 라킴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은 매우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아쉬돗의 부시장 예치엘 윙가튼은 야드 라킴의 행위가 도시를 정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폭력 단체를 옹호했다.

법정에서의 공방도 이어졌다. 베잇 할렐 측의 변호사가 모은 수많은 증거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야드 라킴의 무단 촬영을 금지하고, 공동체 건물 100m 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만약 야드 라킴이 사역자나 메시아닉 형제자매의 집에 출몰한다면 이는 위법이고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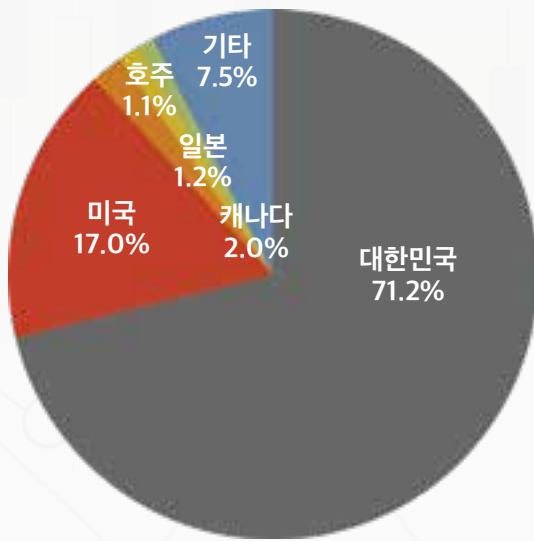
-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본분에 충실하여 편파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 재판에 사용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재정을 채우시도록 기도합니다.
- 청년 제자훈련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통계로 보는 브래드TV의 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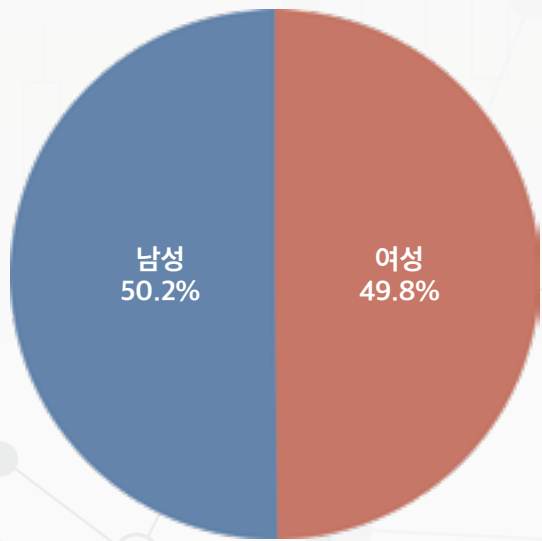
브래드TV가 개국한지 올해로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 'Brad TV'를 사랑하고 시청해주셨는데요.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동안 어떤 나라에서 어떤 분들이 브래드TV를 시청했고,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등을 분석해보았습니다. 통계 자료는 7월 27일까지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많이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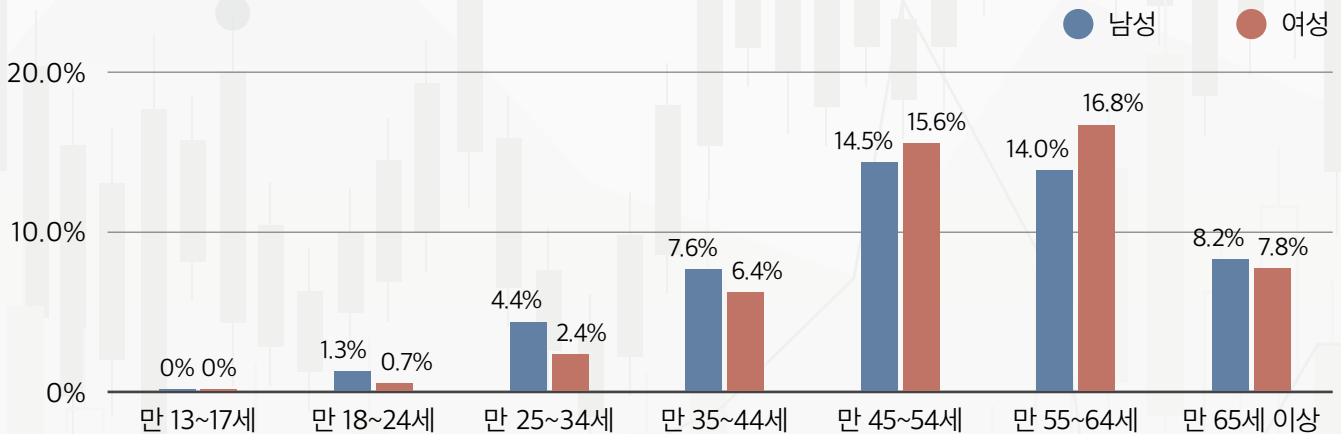
- 대한민국
- 미국
- 캐나다
- 일본
- 호주
- 기타

누가 많이 볼까? - 성별



- 남성
- 여성

누가 많이 볼까? - 연령별



- 남성
- 여성



총 제작 프로그램 수 2,128개
 총 조회수 25,120,617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95,487명

(7월 27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TOP 10

순위	제목	조회수
1	브래드 브리핑 - 거대 유전 발견, 대박 난 이스라엘	392,421
2	김종철 감독 [4인4색] 5강 - 유대인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333,699
3	김종철 감독과 함께 떠나는 [살롬 이스라엘] 1회. 역사가 흐르는 사막 네게브	303,365
4	브래드쇼 265회 유대인의 금서 '이사야 53장'의 비밀 - 미치 글레이저 박사 (2)	275,440
5	이스라엘&중동 리포트 2019년 11월 27일. 이란 정예군, 로켓 공격 감행.. 이스라엘, 시리아 20여 곳 공습	243,585
6	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 마지막 때 주목해야 할 세 나라	229,752
7	ISRAEL ON YOUTUBE - "유대인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228,996
8	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 적그리스도, 누구일까?	211,078
9	HD 제3성전 영화 한글 예고편 (공식)	177,619
10	ISRAEL ON YOUTUBE - 랍비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진짜 이유는?	165,969

유튜브 검색어 TOP 10

순위	검색어	순위	검색어
1	브래드tv	6	브레드티브
2	brad tv	7	브래드티비
3	김종철감독	8	유대인
4	어빈 백스터	9	bradtv
5	이스라엘	10	브래드 tv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케냐 유대인 보육원으로부터 온 감사 편지

지난 7월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케냐 유대인 보육원에 5월 27일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이곳의 소식을 전해온 티쿤 뉴스레터를 통해 후원 정보를 받아 송금하였는데, 이후 조시 오구 투 목사님이 감사의 편지와 함께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아래 글은 조시 목사님의 감사 편지입니다.

샬롬, 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쁜 날입니다. 이곳의 아이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이들 모두를 위해 축복하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대인 난민이라 부르며 조롱합니다. 저희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케냐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래드TV가 개국 6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브래드TV가 올해로 6주년이 되었습니다. 브래드TV는 지난 2014년 8월 1일에 첫 방송을 시작으로 유튜브의 홍수 속에서 이스라엘 선교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성장해왔습니다.

브래드TV를 오래전부터 시청하셨던 분들은 저희의 사역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좁은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얻어 시작했는데 4년째 되는 해에 지금의 사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래드TV의 유튜브 구독자가 어느덧 9만 5천을 넘어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래드(Brad)’라는 이름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송이 시청자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지 저희는 매 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브래드TV를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저희도 더 많은 프로그램과 영상으로 이스라엘을 알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토라포션과 5781년 유대력 캘린더가 출시됐습니다



작년 8월, 브래드북스에서 출간한 ‘토라포션’과 5780년 ‘여호와의 절기와 유대력 캘린더’가 많은 분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중에 토라포션에 관한 도서가 적을 뿐 아니라 매주 토라포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도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리고 작년에 출시한 5780년 유대력 탁상 캘린더는 윤정원 화가가 직접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을 감상하면서 여호와의 절기와 매주 토라포션 말씀 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직원들도 캘린더 내용이 좋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서와 캘린더가 품질된 이후에도 많은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토라포션에 대해 더 전하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서 출판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재정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더 판매하지 않고 1년 동안 재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토라포션이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합니다. 드디어 올해 8월, 토라포션과 5781년 유대력 탁상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토라포션 책은 표지도 새롭게 바꾸고, 탁상 캘린더는 브래드TV의 지난 사역 사진을 넣고 달력 면을 가독성 좋게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토라포션 도서와 유대력 캘린더는 오직 브래드스토어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서는 30,000원이며, 탁상 캘린더는 9,000원입니다. 도서와 캘린더를 세트로 구매 시 10% 할인된 가격 35,1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래드스토어를 확인하세요.



구입: 브래드스토어 www.bradstore.com, 전화 031-926-2722



토라란 무엇인가?

히브리어 단어로 '토라(תּוֹרָה, Torah)'는 '화살을 쏘다' 또는 '과녁을 맞히다'라는 뜻을 가진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다. 토라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으로 모세오경이나 모세율법으로 불린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다섯 권에서 율법적인 내용은 전반적인 큰 틀의 부분 집합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묶어서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토라는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자 지침서이다. 한 묶음인 토라는 각 권이 하나의 책이면서 또 다섯 권이 하나로 이어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서 정연하게 배열해 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시간과 사건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토라포션과 구성

'토라포션(Torah Portion)'은 유대인들이 일 년 동안 토라를 일독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분량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을 때 '하프타라(Haftarah)'라고 하는 네비임(선지서)¹⁾과 역사서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토라포션이라 부른다.

토라포션은 토라를 54개의 단락으로 나눈다. 창세기 12개, 출애굽기는 11개, 레위기는 10개, 민수기 10개, 신명기 11개의 포션(파라샤, Parashah)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포션을 '파라샤-OO'으로 부른다. 1년이 52주이므로 토라포션의 일부는 두 포션을 함께 읽는데, 이를 '더블 포션'이라 한다.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에는 별도로 정해진 토라포션을 낭독한다.

하프타라는 아슈케나짐(독일과 동유럽 크리스천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세파르딤(남유럽 무슬림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닉(예슈아 즉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 신앙공동체)에 따라 각기 다른 부분을 채택하였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토라와 하프타라에 더하여 신약성경을 나눈 '브리트 하다샤(Brit Chadashah)'를 포함하여 토라포션을 목상한다. 즉 넓은 의미에서 토라포션은 모세오경을 나눠서 읽는 토라포션에 예언서를 나눠서 읽는 하프타라와 관련된 신약성경 부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안타깝게도 신약의 경우에는 토라와 하프타라와 같이 표준화된 읽기가 없다. 브래드박스에서 출판한 존 파슨스의 토라포션 책은 유대인 신약 성경(Jewish New Testament)의 저자인 데이비드 스텐 박사(DR. David Stern)가 제안한 신약읽기표를 사용하였다.

토라포션은 언제부터 읽었을까?

느부갓네살로 인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고토로 돌아온 그들은 역사적 반성과 신앙적 회개를 통해 나라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켰다. 유대인 에스라 학자는 모세오경, 네비임(선지서), 역사서를 일 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었다. 느헤미야 8장에 의하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회중 앞에서 토라를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깨닫게 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p.20 '하나님 말씀의 능력 2부: 하나님 말씀의 성쇠 -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를 참고)

1) 네비임(선지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호세아~말라기)



회중 앞에서 토라를 낭독하는 학자 에스라(Paul Gustave Doré, 1866)

유대력의 이해와 토라포션을 시작하는 날

토라포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양력과 구성이 다른 유대력의 특징을 보아야 한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고, 한 주의 가장 중요한 날 사밧(안식일)은 일곱째 날로 태양력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다.

실제로 유대력은 ‘해와 달’로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다. 태양력의 일 년은 365일이지만, 유대력의 일 년은 달의 각 주기가 대략 29.5일이기 때문에 354일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봄, 초막절은 가을 등 절기가 해당 계절에 맞도록 매 2년 또는 3년마다 한 달을 추가해서 태양력에 11일 뒤처지는 것을 상쇄했다.

초막절 7일이 끝난 후 8일째는 ‘여덟째 날’이라는 뜻의 ‘쉐미니 아쯔레트(Shemini Atzeret)’으로 하루 더 축제의 날로 지킨다. 그리고 1년 동안 토라포션을 다 읽은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데 이를 ‘심카 토라(Simchat Torah)’라고 한다. 2020년 심카 토라는 10월 10일 해질 때부터 11일 해질 때까지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쉐미니 아쯔레트와 심카 토라를 여덟째 날에 같이 지키는 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홉째 날에 심카 토라를 명절로 지킨다. 이렇게 1년 치 토라를 완독한 후에는 다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다.

예슈아도 토라포션을 읽으셨다

유대인들은 지난 2,500여 년 동안 매해 동일한 토라포션을 읽으며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 예슈아도 토라포션에 따라 말씀을 읽으셨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슈아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 건네준 말씀 이사야 61장을 읽으셨다. 그 말씀은 우연히 읽은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그날의 토라포션을 준 것이고 예슈아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 61장에 희년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간 토라포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한다.

토라포션은 왜 중요할까?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예슈아의 사명과 그분의 말씀하심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과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토라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이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은 문맥을 무시하고 읽는 것이다.

예슈아와 그의 제자들은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이었다. 그들이 공부하고, 인용하고 사랑했던 모든 말씀은 토라와 선지서, 역사서였다. 예슈아는 성경의 그 어느 부분보다도 토라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선교 전문 출판사 브래드북스가 존 파슨스의 토라포션을 번역, 출판하였다. 본서는 1년 365일의 말씀 묵상집과 같은 구조이며,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매년 반복해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서에서는 각 파라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히브리어 속에 담긴 뜻풀이 그리고 그와 연관된 탈무드나 이스라엘 현자들의 이야기들을 곁들여 구성하였다. 히브리 관점으로 토라를 공부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 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입 : www.bradstore.com, 031-926-2722

출처 : 존 파슨스, 토라포션, 브래드북스.



이스라엘에서 온 뉴스

글/ KRM News 정리/ 신승의

2020년 6월 셋째 주 <6월 11일 ~ 17일>

서안 지구 합병 계획에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 이례적 반응

서안 지구 합병에 대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7월 1일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는 이스라엘이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있고,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는 합병을 막기 위해 이례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 장관은 미국 유대인 컨퍼런스에서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합병을 반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이 합병을 포기한다면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례적인 부분은 우선 외교관계가 없는 아랍에미리트 외무부 장관이 유대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통 아랍 국가들이 해온 것처럼 강한 발언과 제재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점차 완화되어 왔던 수니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기술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목요일에는 외무부 장관을 라말라로 보내 압바스 수반과 예정에 없던 미팅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유대인 컨퍼런스에서 연설 중인 아랍에미리트 외무부 장관

2020년 6월 넷째 주 <6월 18일 ~ 24일>

서안 지구 합병 위한 물밑 작업

7월 1일 네타냐후의 서안 지구 합병 표결을 일주일 앞두고, 이스라엘 내부의 반대와 아랍 국가들의 극심한 반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협박에도 상관없이,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첩보기관 모사드 대표 요시 코헨은 수요일 요르단 국왕을 만나고 왔으며, 목요일 오후 네타냐후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기술 및 R&D 협력을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 합병을 발표하는 순간 전쟁 선포라 여기며 반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차기 국무총리이자 국방장관인 간츠는 이스라엘군에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했고, 하마스의 어떠한 공격에도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서안 지구

예루살렘 미대사관, LGBT 지지 현수막 걸어...



예루살렘 미대사관에서 프라이드 주간을 기념해 LGBT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예루살렘 시에서 해당 현수막 철거를 지지했으나, 따르지 않자 가림막으로 가려 버렸다

2020년 7월 첫째 주 <6월 25일 ~ 7월 1일>

팔레스타인 주최 서안 지구 합병 반대 컨퍼런스에 이스라엘 국회의원 참석

목요일, 보기 드물게 가자의 하마스당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파타당이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합병에 반대하기 위한 연대를 도모하는 컨퍼런스를 주최했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아랍 정당 소속의 아이만 오데 국회의원이 참석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당시 “유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주창하면서 이스라엘 내 소수 민족인 아랍인들에게도 시민권을 줘고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설립할 수 있게 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팔레스타인 건국을 우선순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통합정부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아랍 정당 조인트 리스트가 제1야당이 되면 국가 안보와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유 되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아랍 조인트 리스트 아이만 오데 국회의원

2020년 7월 둘째 주 <7월 2일 ~ 8일>

이스라엘, 코로나19 확진자 수 3만 4천 명 넘어...

이스라엘은 7월 둘째 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4천 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양성 환자 수는 1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확산되었을 때보다는 중증 상태인 환자의 수가 줄었지만, 현재 확진자들 대부분이 젊은 층들이어서 앞으로 2주간의 확진자 추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컨트롤 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고, 참모 총장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군인 만여 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정보부 8200 부대에도 20명이나 확진자가 있어, 현재 모든 군인들의 이동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강화돼 경찰이 수시로 버스 내부를 검문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2부

하나님 말씀의 성쇠 -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글/ 쉬라 소르코 램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주전 597년이었다. 그해 유다 왕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이스라엘에 남겨진 것이라곤 예레미야의 소망에 대한 예언뿐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렘 29:10)*

그리고 약 68년 후에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동하게 하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하셨다.

오직 43,000명의 유대인만이 바벨론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대 민족의 영적 리더인 레위 지파는 분열됐다. 많은 유대인들이 동화되고 잡혼으로 피가 섞였다. 이들은 히브리어 대신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썼고, 사업과 정치에서 성공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오랫동안 정착하여 집을 짓

고 바벨론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분명 디아스포라에서의 생활은 황량한 유대보다 나았다. 바사가 다스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은 강한 영적 리더십의 부재, 가난, 식량 부족, 끝없는 적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어떠한 실질적인 경제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사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 그래도 완공까지는 20년 이상 더 걸릴 것이었다.

서기관 에스라

고군분투하고 있는 귀환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영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에스라였다. 그는 약 80년 후에 돌아왔다. 주전 458년에 그는 추가로 1,800명의 제사장, 레위인, 음악가와 그들의 가족들을 데려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아무런 문제와 장애물 없이 순적하게 지낼 것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귀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적인 자녀들이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이교도와 결혼했다.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몇몇 레위인들은 일찍이 공동체의 영적 필요를 돕기 위해 먼저 이주해 왔지만 사람들이 십일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사역을 내려놓고 돈을 벌 수밖에 없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 상황을 뒤집기로 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스 7:6, 10)



이사야서의 사해 사본

경건한 정치 지도자의 필요

하지만 혼란과 빈곤, 불확실성 속에서 에스라 혼자서는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유대 민족이 경건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민간 정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영적 지도자로 보내셨고 그는 이 땅에 도착하여 백성들을 정돈한 뒤, 성 주위에 성벽을 쌓아 끊이지 않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했다. 느헤미야의 통치와 에스라의 가르침, 레위인들의 예배가 합쳐졌을 때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났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 8:18)

하지만 느헤미야가 왕의 요청으로 잠시 이스라엘을 떠났다 돌아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다시 이방인과 결혼하고, 십일조를 내지 않고, 안식일을 부정하게 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백성을 조직하고 두 개의 대규모 예배 찬양단을 지정하고 다시 에스라를 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에스라는 향후 수 세대에 걸쳐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4세기 동안 잠잠했다. 레위인들은 사그라들었고,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 자신의 깨달음에 따라 유대 종교를 재구성하려 했다. 그들은 토라와 선지자들에게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설명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헬라의 통치

주전 323년에 유대 민족을 향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광활한 영토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두 장군이 정복한 영토를 나눠 가졌다.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은 남쪽의 이집트를 점령했고 셀레우코스 장군은 북쪽 시리아의 주인이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 나라 사이에 있었다. 이는 2세기 반 동안 이스라엘 영토에 이어진 끔찍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두 왕조 간의 잔혹한 행위에는 가족 몰살, 음모, 독살, 살인, 암살,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규모의 학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대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재정복했다.



알렉산더 대왕의 흉상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유대인 랍비

대규모의 유대인이 해방되어 이집트 여러 지역에 정착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대표적이었다. 유대인의 젊은 세대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잃어버렸고 헬라어(그리스어)를 구사했다. 70인의 랍비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히브리 성경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 번역본은

‘셍투아진트(Septuagint)’, 즉 ‘70인 번역 성서’라 이름 붙여졌다. 이들은 토라부터 시작하여 세월이 흘러 히브리 성경의 나머지 부분까지 헬라어로 번역했다.

유대 민족은 주후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 번역 성서를 읽었다. 신약 또한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많은 저자들이 70인 번역 성서에서 구약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방인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70인 번역 성서는 ‘기독교의 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히브리 원어로 된 본문만을 보는 방법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헬라화된 유대인들

한편 전쟁하던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한 지역에서 연합했다. 권력에 미쳐 날뛰어 정복하려 다니던 장군들과 그들의 자손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모든 인종과 민족들에게 헬라 문화를 강요했다. 물론 여기엔 그들의 우상들도 포함됐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 귀족 엘리트들은 헬라의 세련되고 멋진 생활 방식을 수용한 반면, 일반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고수하고자 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주화

셀레우코스 통치자 중 한 명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 민족에게서 유대교의 모든 표징을 박멸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유대 성전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유피테르(주피터)의 신전으로 바꾸고 제단에 유피테르 신상을 두었다. 성전에서는 이교 제사가 드려졌고, 돼지의 피가 제단 위에 부어지고 성전 전체에 뿌려졌다. 또 안티오코스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불법이라 선포했다. 토라 두루마리도 조각조각 찢어 태웠다. 할례를 받은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학살되었다. 결과적으로 안티오코스는 수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했다.

세속화된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의 힘에 굴복했다. 순교하기엔 너무나 세속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 사람들은 소극적인 저항으로 체념했다. 그들은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 견딜 뿐이었다.

늙은 제사장과 다섯 아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제사장의 아들인 유다 마카비에게서 도움이 임했다. 그는 적극적인 저항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그와 세 형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전사들에게 성공을 주셨고, 3년 후 그들은 성전을 재봉헌했다. ‘하시딤’이라고 불린, 경건한 평민들 중 일부는 유대의 군대에 가담했다. 이것이 ‘바리새파’의 시작이었는데, 그들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헌신한 사람들’이었다.

마카비의 형제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시몬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부상하는 로마 제국의 지지를 얻고 7년간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다. 잠깐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신앙의 율법을 실천할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시몬이 주전 141년에 로마 덕에 “영원한 왕자, 사령관, 대제사장”이라는 복합 칭호를 얻었을 때, 하시딤은 제사장이 왕이 될 수는 없다며 그에게 반발했다. 두 칭호는 오로지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에게만 주어질 것이었다.

곧 사태가 악화되었다. 시몬과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여러 고의 통치자이자 야망이 큰 시몬의 사위에게 살해되었다. 살아남은 시몬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주전 135~104년)는 헬라식 생활양식에 완전히 젖어있었다. 그 역시 자신을 대제사장과 유대 국가의 우두머리로 지명했다. 그때부터 제사장은 완전히 부패했다. 대제사장들은 돈으로 직책을 얻었다.

참된 예배의 붕괴

이후 수백 년간 예슈아의 탄생까지 성지를 두고 두 헬라 왕조 간의 전쟁과 대학살, 계략, 기만은 이어졌고, 결국 신흥 로마 제국에 의해 패배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 목자 잃은 양이었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귀족적이고 부유한 자유주의 유대인들은 새 정복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교활한 권모술수를 발휘했다. 제사장직의 통치자들은 사두개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은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으며, 종교적인 부분에서 융통성 없이 엄격한 준수를 고집하며, 토라의 계명들을 의무적으로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패했고 세속적이었으며 오로지 권력만을 염두

에 두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보다 나은 게 없었다. 더이상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경건한 선지자가 없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수많은 표면적인 계명과 전통으로 발전했으며, 그 계명과 전통 중 다수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경고한 바와 같이 발로 물을 흐렸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 두려움을 최고의 동기로 삼고 율법의 세부 사항들로 자신을 분주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했다. 이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잃어버렸다. 바울 사도는 이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롬 10:2)



예슈아의 예루살렘 입성, 승리의 입성 (Gettyimages)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를 통해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슈아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더이상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사람의 계명으로 눈이 어두워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는 혼란과 전쟁의 때가 한 민족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주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악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민족의 평화와 자유를 유지해주는 것은 능동적인 기도와 중보이며, 이러한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은 번영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 2:1-4)

감사하게도 예슈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감당한 유대인들은 소수가 아니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에게엔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 유대 민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1:26)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의 영을 부으사 모두에게 구원 받을 기회를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 2:3)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합 2:14)

다음 호에 계속



2020.7.2 목

**이스라엘 정부, 서안 지구 합병 잠정 보류...
“계속 논의”**

네타냐후 총리가 7월 1일에 서안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합병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발표 예정일인 1일 당일, 미 행정부와 합병 가능성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안지구 합병 발표 잠정 보류는 동맹국들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반발뿐만 아니라 내각 내 반발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런가 하면 7월 2일,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파타당과 하마스가 이례적으로 협력을 과시하면서 서안지구 합병안과 트럼프 평화안을 좌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타당의 고위 관리인 지브릴 라주브는 라말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세기의 거래를 무너뜨리기로 한 합의를 발표한다”라며 “대중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주브 파타당 고위 관리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서안지구와 예루살렘에 대한 영토 교환을 거부한 이후 발생한 인티파다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했다.



◆ 기도 제목 ◆

서안 지구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회복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주권 안에서 진행되고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이 연합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20. 7. 3 금

**쿠웨이트 언론, 이란 내 폭발 사건 배후로
이스라엘 지목**

쿠웨이트 매체 알 자레다는 7월 3일, 지난달 말 이란 우라늄 농축 시설과 미사일 생산 시설과 관련된 두 건의 폭발은 이스라엘이 그 배후라고 보도했다. 알 자레다는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으로 6월 25일 새벽, 나탄즈 핵농축 시설에서 화재와 함께 폭발이 발생했다고 익명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의 핵농축 프로그램은 두어 달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알 자레다 일간지는 “26일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파르친 미사일 생산 단지를 폭격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런가 하면 5일, 처음에는 단순 화재라고 밝혔던 이란 정부가 나탄즈 핵시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을 인정했다. 또 같은 날, 간츠 국방부 장관은 관련된 추측에 대해 일축하면서 “우리를 의심할 수 있지만, 이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우리와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기도 제목 ◆

이란의 핵 개발이 중단되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이란의 위협이 힘을 잃도록 기도합시다

2020. 7. 5 일

**이스라엘,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천 명 넘어…
제한 조치 실행**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7월 2일 하루 동안 1,1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보건부가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보건부는 행사장과 술집, 클럽, 기도 장소에 대해 50명으로 제한했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모든 모임은 앞으로 2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심각한 상태의 환자가 50% 증가했다”라며 “확진 곡선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규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기준으로 2만 9천여 명의 환자 중에 1만 7천여 명이 회복됐고, 10,929명 중에서 84명이 심각한 상태이다. 또 이스라엘 매체 N12는 법적인 문제로 중단됐던 이스라엘 보안국 신베트의 감시 프로그램이 다시 가동됐고, 수천 명의 시민이 이미 연락을 받고 격리소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았다고 보도했다.



◆ 기도 제목 ◆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과 그 가정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2020.7.8 수

이스라엘, 미 국방부에 KC-46 공중급유기 인도 가속화 요청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7월 8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 국방성에 KC-46 페가수스 공중급유기 인도를 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미 국방성은 해당 공중급유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하는데 승인했다. 그리고 최근 이란 본토 공습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미 국방성에 2년 이내에 해당 기체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채널 12가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이란 고위 관리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일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F-35 아디르가 '중동 어느 곳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이란에 경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측의 주장에 따르면 두 차례 F-35 아디르가 이란 영공을 침입했는데, 첫 번째 사례로는 지난해 이란 영공 중심부를 정찰한 것과 지난 6월 파르친 공습 당시이다.



◆ 기도 제목 ◆

이스라엘군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0.7.9 목

이란서 원인불명의 폭발 사건 잇달아... 이스라엘 배후 의심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7월 9일 아침, 테헤란 서부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나 인근 전력 공급이 끊겼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폭발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 지하 군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일에는 이란 아바즈시의 발전소가 폭발로 피해를 보았고 몇 시간 후에는 이란 남동부에 있는 한 석유 화학 센터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7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중동 정보 관리에 따르면 6월 말 나탄즈 핵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스라엘이 그 배후이며 강력한 폭탄에 의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시설의 폭발 사건에 대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은 위험하며 세계 어느 곳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라비에이 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단순 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기도 제목 ◆

이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020.7.11 토

코로나19 규제에 초정통파 반발... 연립 정부 균열

현지 언론에 따르면, 7월 10일 한 초정통파 의원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종교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제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두 하레디 정당에 일시적으로 정부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발언은 또 다른 저명한 초정통파 크네셋 의원이 코로나19 2차 파동으로 정부가 예시바를 폐쇄하기로 한다면 연립정부에서 당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또 다음 날인 11일에는 예루살렘, 이르미야후와 삼가르 거리 교차로에서 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발한 초정통파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시위대 10명이 체포됐다. 한편, 예루살렘의 초정통파 거주 지역인 로메마, 키랏 벨즈, 키랏 산즈 등 3곳은 확진자 급증으로 10일 오후 1시부터 봉쇄 조치가 시행됐다. 폐쇄된 지역 내에서는 사업 운영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됐고, 예루살렘 외에도 베이트 쉘메쉬, 로드, 키랏 말라키 등이 7일 동안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봉쇄 조치는 7월 17일 오전 8시에 해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도 제목 ◆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공직자들이 분열하지 않고 협력하고 초정통파 유대인들과의 충돌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0.7.12 일

간츠 국방부 장관, 총리 합병 계획 반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7월 12일,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가 네타냐후 총리의 직무수행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 13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61%가 총리의 '전반적 코로나19 위기 대처'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5%는 경제적 여파를 다루는 정부의 대책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지난 4월 1차 코로나19 파동 때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70% 네타냐후 총리의 대처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들은 총리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총리와 청백당 간의 의견 불일치로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운 선거를 바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도 제목 ◆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뜻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맡겨주신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World Review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이 기사는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Endtime ministries에서 발행되는 Endtime 잡지에 기고된 글을 옮긴 것으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예언하고 있는 각 영역에 대해 전 세계가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6번째 나팔

미국, '중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패배할 것'

미국 국방부 소식통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방부가 진행한 2030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어떠한 공격이 발발하든, 미국의 '자본 손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쟁이 벌어지는 원인으로서는 대만이 가장 유력하며 심지어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문제 컨설턴트인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가 밝혔다.

이란의 우라늄 욕심이 갈등 야기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란 인터내셔널 소속 전문가인 푸팍 모히발리 박사(Dr. Pupak Mohebbali)는 이란의 핵 물질에 대한 연구는 중동 정세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란이 핵 물질을 지속해서 획득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이 해당 지역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의 다툼

코로나19가 전역에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시리아의 이дли브 지역에 군사 배치를 강행하고 유프라테스강 동쪽 패권을 유지했다. 코로나19가 이 지역의 싸움을 늦출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바이러스와 터키를 지지하는 시리아군 파벌 간의 내분에도 늦춰지지 않았다.

신성로마제국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유럽 디지털 권리 운동 단체(EDRi)는 유럽연합(EU)에 모든 형태의 생체 정보를 이용한 대량 감시를 금지하도록 요청하였다. 해당 단체는 현재 15개 이상의 EU 회원국에서 생체 인식 감시가 진행됨을 밝혔다. 그들은 생체 감시가 사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불신을 증가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샤를마뉴상

올해의 샤를마뉴상은 루마니아 대통령 클라우스 이오아니스(Klaus Iohannis)에게 수여 된다. 그는 유럽의 공유 가치를 구현하고 법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며 유럽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파하기로 했다. 국제 샤를마뉴상 수상식은 2020년 5월 2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

코로나19 대처에 EU의 미래가 달려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해서 EU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EU가 굳건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그로 인해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라이벌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라이벌이 힘을 되찾지 못하게 EU가 한 가족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짐승의 표

코로나19를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구글은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지 보고서를 공개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자가 격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다. ‘구글’과 ‘애플’은 블루투스를 통해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에 협력하고 있다. 위치 및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가장 큰 위협은 향후 개인 데이터가 판매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페이스X의 경쟁사 파산

코로나19는 74개나 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648개의 지구 궤도를 선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원웹(OneWeb)을 파산하게 했다. 원웹은 지난 3월 27일, 대부분의 인력을 해고하고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올해 연말까지 우주에 1,0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비접촉식 결제와 디지털 지갑의 등장은 많은 도시에서 현금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은행 이율 인상과 많은 지점 폐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준비하기도 전에 금융 시스템이 현금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일부 시민의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세계 정부

대만을 지지하기 시작한 미국 동맹 국가

대만은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 초대받지 않았으나 대만을 WHO에 포함하고 싶었던 미국의 요구에 세계 지도자들이 동참했다. 2016년 중국은 대만을 국제 사회에서 소외시키려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 정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정보 유출 방지 캠페인

중국의 공산당과 정부는 우한이 코로나19 발병 근원지가 아니며 중국이 세계의 회복을 돕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 참여 센터(Global Engagement Center)의 이사 레아 가브리엘(Lea Gabrielle)은 중국이 질병의 근원이 아닌 글로벌 리더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베이징에서 공격적으로 정보를 퍼뜨리고 있음을 밝혔다.

WHO에 대금 지급 중단을 선언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코로나19가 중국으로부터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해당 기구를 책망했다. 그는 유엔 보건 당국이 중국이 제출한 초기 보고서를 제대로 조사했다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종교

종교의 자유, 대법원까지 가나

미국 전역에서 종교의 자유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사이에 매우 특이한 다툼을 일으켰다. 이 문제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윌리엄 바(William Barr) 미국 법무부 장관은 “종교 모임에 대한 정부 규제를 지켜 보고 있다. 몇몇 규제는 미국인의 삶에 너무 가혹해 보인다”고 말했다.

낙태 허용

영국 정부는 의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원격 의료를 통해 낙태약을 처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이라는 단체는 “이러한 결정은 토론도, 투표도, 공론화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결정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법안과 함께 통과 시켜 버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슬람 개종 강요 받은 덴마크 수감자

수년 동안 덴마크 교도소는 “완전히 이슬람화”되었고 이슬람교가 아닌 수감자들은 학대를 당하며 이슬람 기도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실무자들은 해결하기를 꺼리는데, 지하드 왓치에 따르면 이는 당국이 “이슬람 혐오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7월 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브래드TV 7월 프로그램 리스트 (6/24 - 7/15)

브래드쇼

6/24

포스트 코로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윤석호 목사



7/1

성령이 그리는
예언적 그림을 아시나요?

/자넷 현

7/8

한국에서 목회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매튜 톨러



7/15

반메시아닉의 횡포에 당한
셀라누TV

/론 캔터

이스라엘 & 중동리포트

6/24

- 이스라엘 일식 관측... 정탐꾼 가나안 파송 3,332주년
- 불탄 회고록 공개... "트럼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지지"
- 이스라엘 하루 확진자 300여 명... 총리, "폐쇄 재검토"
- 코로나19 완치자 일부, 환상통 및 뇌졸중 증세 보여



7/1

- 이스라엘 방송위, 셀라누TV 방송면허 철회 통보
- 이스라엘군, 시리아 내 이란군 및 지원 세력 공습
- 하마스, 서안지구 합병은 선전포고... 로켓포 발사
- 이란 수도 테헤란서 원인불명의 대규모 폭발 발생

7/8

- 이스라엘 정부, 서안지구 합병 잠정 보류... "계속 논의"
- 이스라엘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천 명 넘어... 제한 조치 실행
- 이스라엘, 사이버 공격 및 F-35 동원해 이란 본토 공격
- 러·이란·터키, 이스라엘 공습 비난 성명 발표... "주권 침해"



7/15

- 이스라엘, 이란 무기 공장 등 공격... 2명 사망 70여 명 부상
- 이스라엘, 미 국방부에 KC-46 공중급유기 인도 가속화 요청
- 이스라엘 공군, 새 특수부대 워그 세븐 창설... '적 후방에서 작전'
- 이스라엘 연립정부 균열... 네타냐후 총리, 새 총선 고려 중?

브래드 브리핑



6/24

이스라엘, 중국과 하나 되어
미국과 싸울 것인가?



7/8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 합병,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은 마지막 때



7/1
이란의 핵무기와 여섯 번째 나팔 전쟁
7/15
딥 스테이트와 딥 처치 (1)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7/1
- 위기를 맞은 유대인과 아랍인의 연합
- 예슈아를 증거하다 직업을 잃게 된 전도자



7/15
- 11년간의 고통, 그 재판의 결과는?
- 셀라누tv에 대한 뉴스, 놓치지 마세요
- 믿음의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후속 소식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6/24
- 서안지구 합병 계획 논란 가중
-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야
- 알리야를 책임지는 기구
-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돕는 CBN 지사



7/1
- 서안지구 합병: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것인가
- 터키군 공습으로 위험해 처한 야지디 민족
- 위기 속 알리야가 급증하는 이유
- 이스라엘 스타트업 : 코로나19 필터 청정기 개발 중

7/8
- 아랍계 대사가 유대국가를 지지하는 이유
- 이스라엘, 합병할 수 있을 것인가?
- 성경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발굴
- CBN 라이브: 예루살렘의 일상 생활



7/15
- 미뤄진 서안지구 합병 계획
- 방통위, GOD TV 방송 중단
- 시리아 국경 지대, 이란의 공격 위험에 노출
- 에스라 시대의 유물 발견

메시아를 만났다



6/24
항상 우울하고 슬픈 것들에 끌렸죠



7/1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7/8
하나님께 진짜인지 보여달라고 물어보면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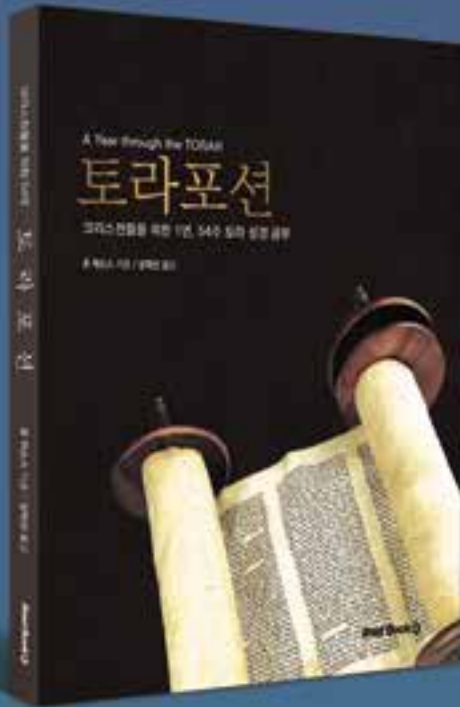
7/15
나 사실 하나님이 필요한가 봐

금요 샅밭 예배

6/26 거룩한 시간의 공간 샅밭 / 이재철 목사
7/3 발람의 길을 주의하라 / 이정 목사

7/10 비느하스의 질투와 열심 / 이재진 선교사

지금 브래드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토라포션 & 유대력 탁상 캘린더



크리스천을 위한 1년, 54주 토라 성경공부
토라포션

모세오경을 히브리 관점에서 상세히 파헤친다!
구약과 신약, 54개의 단락으로 나뉜 토라포션!
메시아닉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토라 성경 가이드 북!

저자 존 파슨스 John J. Parsons
가격 30,000원
*10부 이상 구매시 권당 27,000원

여호와의 절기와 유대력 탁상 캘린더 **가격 9,000원**
*10부 이상 구매시 권당 8,100원
토라포션과 함께 그레고리력과 유대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캘린더!



위의 두가지 상품을 **할인됩니다!** 토라포션 + 여호와의 절기와 유대력 탁상 캘린더
함께 구입하시면 39,000 ▶ 35,100원